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㉒ 고려 선승의 구도수행 – 지눌로부터 혜심으로

▶한줄요약
우리나라 선종 간화선은 보조 지눌(知訥, 1158~1210)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눌은 선종과 교종이 심각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둘을 회통시키고 독창적 간화선 수행법을 마련했다.



선교 양종 회통하고 간화선 수행법 마련

1. 한국 간화선의 기틀을 마련한 지눌

우리나라 선종 간화선은 보조 지눌(知訥, 1158~1210)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눌은 선종과 교종이 심각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둘을 회통시키고 독창적 간화선 수행법을 마련했다. 지눌의 수행법은 오늘까지 세간과 출세간 선수행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지눌의 아버지 정광우는 오늘날 국립대학 교수 격인 국학학정(國學學正)이었으니 가정 형편은 좋았다. 그러나 지눌은 날 때부터 병약했다. 아들의 병만 낫게 해주시면 부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고 서원을 올리자 곧 병이 나았다. 8세 때 종휘(宗暉)를 스승으로 출가했고 25세에 승과에 합격했다. 승려로서 영달을 보장받지만 마다했다. 보제사 담선 법회에서 도반 10여 명과 "명리의 길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정혜를 닦자"고 다짐했다. 고려 선불교를 중흥하려는 서원을 가진 지눌인지라 함께 수행할 도반을 우선 찾은 것이다.

지눌은 요세(了世, 1163~1245)가 많은 수행 대중을 이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결사를 함께 꾸리자며 편지를 보냈다. 그 뜻에 공감한 요세가 지눌이 있던 거조사(거조암)로 왔다. 득재(得才)도 동참했다. 1190년 거조사에서 〈정혜결사문〉을 반포하고 정혜결사를 시작했다.

하근기 중생에게 천태선의 일심삼관(一心三觀, 일심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空, 假, 中 세 측면에서 관하는 관법)이 더 유효하다고 판단한 요세는 빠져나가 1216년 만덕산에 800여 칸의 절을 지어 백련사결사를 시작했다. 지눌의 정혜결사는 요세의 백련사결사와 쌍벽을 이루며 고려 중후기 선을 부흥시켰다.

송광사에 터전을 마련한 지눌은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수행을 이끌었다. 〈기신론〉, 〈원각경〉, 〈금강경〉, 〈육조단경〉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하고 이통현(李通玄, 635~730)의 〈신화엄경론〉과 대혜 종고(大慧宗杲, 1089~1163)의 〈대혜보각선사어록〉 등을 참조해서 성적등지문(惺寂等持門),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 경절문(徑截門) 등 삼문(三門)을 만들었다. 성적등지문이 마음을 성성하고도 적적하게 만드는 수행이라면, 원돈신해문은 가장 원만한 화엄의 교리를 믿고 이해하여 일순간에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수행이고, 경절문은 곧바로 본래 면목을 터득하여 부처가 되게 하는 간화선 수행이다.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수행의 단계와 방법을 달리 설정한 것이다.

무신란과 민란이 연이어진 사회적 혼란기에 스승 없이 구도의 길을 걸어야 했던 지눌은 자기의 수행에 대해 치열하게 거듭 성찰했다. 수행지도법을 체계화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 수행 상황과 경지에 대응하여 저서를 펴냈다. 정혜결사를 이끌면서 〈정혜결사문〉과 〈수심결〉을 내놓았고, 수선사의 청규로서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를 펴냈다. 화엄과 선을 회통시켜야 했던 상황에서 〈원돈성불론〉을 펴냈고, 선불교의 사상사와 수행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절요〉를, 독자적 간화선 수행법을 마련하기 위해 〈간화결의론〉을 펴냈다.

2. 세 번의 전의 혹은 깨달음

지눌은 간화선 수행법을 완성시키기까지 3번의 전의(轉依)를 경험하거나 깨달았다. 먼저 25세였던 1182년 창평 청원사에 주석할 때였다. "진여의 자성이 생각을 일으킴에 비록 육근이 견문각지(見聞覺知)하더라도 어떤 사물에도 물들지 않고 항상 자유자재한다."는 〈육조단경〉의 구절을 보는 순간 경이와 환희심을 경험했다. 마음속에 진여자성이 언제나 그대로 있음을 깨닫고 전의한 것이다.

1190년 거조사서 정혜결사 시작
송광사서 정혜쌍수 수행 이끌어
수행법 완성까지 3번 轉依 경험
〈선문염송〉 '지눌-혜심' 큰 업적
혜심, 일미선(一味禪) 주창·실천



보조 지눌의 진영.

두 번째 전의는 28세였던 1185년에 경험했다. 하가산(예천 학가산) 보문사에서 3년 동안 〈대장경〉을 열람하면서 선과 교가 다르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화엄경〉 여래출현품을 읽었다. 한 티끌이 모든 경전을 담고 있다는 가르침에 이어서, "여래의 지혜도 한량없고 장애가 없어 널리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서도 중생의 몸 안에 모두 갖추어져 있으나, 어리석은 중생은 망상에 사로잡혀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구절을 본 지눌은 경책을 정수리에 올리고 눈물을 흘렸다. 중생들을 깨닫게 할 방법을 고민해 오던 중, 그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그리고 이통현(李通玄, 635~730)의 〈신화엄경론〉을 찾아 읽고는 화엄에도 돈오의 문이 있음을 알고 화엄적 돈오의 길을 마련했다.

1198년 41세가 되었다. 보문사로부터 지리산 상무주암으로 옮겨간 지도 10여 년이 지났다. 부지런히 수행하며 시간을 헛되이 보낸 적은 없으나, 정견(情見)을 내려두지 못하니 뭔가가 가슴에 걸려 마치 원수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전의 두 번 깨달음에 미진한 바가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대혜보각선사어록〉을 읽다가 "선(禪)은 고요한 곳에도 있지 않고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않다. 날마다 인연에 응하는 곳에도 있지 않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고요하고 시끄러운 곳과 날마다 인연에 응하는 곳과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을 버리고 참구하지 말라. 홀연히 눈이 열리면 그 모두가 집안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구절에 이르러 크게 깨닫게 되었다. 가슴에 걸려있던 원수 같은 물건이 사라져 편안하고 즐거워졌다. 구체적 삶 속에서 펼치는 선의 활발발한 작용을 터득함으로써 생활선을 꾸리게 된 것이다. 이 세 번째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이라 인정되는 바, 그것이 생애의 분기점을 마련했다. 1200년 송광사로 옮겨가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자비를 베풀고 교화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3. 무자화두 병통 제시와 간화선법 완성

지눌은 자기 깨달음을 근간으로 하여 간화선 수행법을 정립하고 무자(無字)화두 10종병(種病)을 제시했다. 이는 간화선을 이끈 대혜 종고도 이르지 못한 영역이다.

선지식이 수행자에게 주는 화두는 '가르칠 수 없는 가르침'이다. 재미없고 따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수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맥락적 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식(情識)이 깨뜨려 지지 않았으면 번뇌의 불이 활활 타오를 것이다. 바로 그럴 때 의심의 대상인 화두를 든다. 가령 어느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라고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조주 스님이 '없다[無]'라고 답했다. 이 화두를 의심하며 집중하기만 해야 한다."

그러면서 빠져들어서는 안 될 10가지 화두 들기의 병폐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었다. "있다, 없다라고 이해하지 말라." "이치가 그렇겠거니 생각하지 말라." "눈썹을 움직이고 눈을 깜박거리는 것이 자기 진면목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말에서 깨달음을 구하지 말라."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자기의 진면목이라 여기지 말라." "경전을 인용해서 이해하지 말라." 등이다. 화두 수행자라면 이것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서 베풀어진 선지식의 자비인가를 알 것이다. 화두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새 어떤 경지에 떨어져서 헤매곤 하는데, 이들 사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지눌이 제시해 준 무자화두 10종병의 사례는 장애에 걸려 힘을 허비하게 될 화두 수행자에게 베풀어진 강력한 경책이 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자량이 된다.

4. 스승 지눌과 제자 혜심의 만남

진각 혜심(慧諶, 1178~1234)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며 한국불교사의 으뜸 자리에 있어야 할 저서 중 하나가 〈선문염송(禪門拈頌)〉일 것이다. 간화선 화두 1125칙을 모아서 염과 찬송을 붙인 것이다. 이 방대한 저서의 출현이야말로 '지눌-혜심'의 사제 관계가 이룩해낸 고려 선불교의 쾌거이며 민족 문화 유산의 비약적 고양이다.

일찍 아버지를 여읜 혜심은 어머니가 출가를 허락하지 않아 유학을 공부했다. 23세 때 사마시에 합격하여 태학에 들어갔지만, 어머니가 타계하여 바로 지눌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다.

혜심은 치열하게 정진했다. 반석 위에 앉아 온종일 선정에 들었고, 오경(五更)이 되면 게송을 읊었는데, 10리 밖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 지리산 금대암에 있을 때는 연좌대 위에서 좌선을 했는데 눈이 내려도 삼매에서 깨어나지 않아 눈 속에 파묻혔다. 대중이 다가가 흔들어도 대답이 없으니 죽은 줄만 알았다고 한다.

1205년 가을, 혜심은 광양 백운산에 머물고 있던 스승 지눌을 뵈러 길을 떠났다가 잠시 걸음을 멈췄다. 스승이 계신 암자가 아득한데 스승의 음성이 들려왔다. 게송을 지었다. "아이 부르는 소리 소나무 겨우살이의 안개에 울려 퍼지고/ 차 달이는 향기 돌길 바람에 전해오네" 제자를 위해 스승이 달이는 차의 향기가 아득한 곳 제자에게 전해지고 그에 감동한 제자가 게송을 지어 바치는 장면이 아름답다. 이 장면은 스승이 제자를 인가하는 대목으로 이어진다. 이규보가 지은 지눌의 비문에서다.

"지눌이 '조주의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들어 보이고 무자화두에 대한 '간화선의 열 가지 병통'을 들어 보이니 혜심만이 대답했다. '세 가지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만이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지눌이 되물었다. '세 가지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 숨을 쉬고 있는가?' 혜심이 손으로 창문을 한 번 내리쳤다. 지눌은 크게 웃고 방장실로 돌아가서 몰래 혜심을 불렀다. '내 너를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는 불법 수호하는 것을 임무로 삼아 그 본원을 바꾸지 말아라.'"

스승은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제자에게 전했다. 법맥을 이어주는 증표다. 의발 대신 부채를 받은 제자가 다시 시를 지었다. "전에는 스승 손에 있던 것/ 오늘 제자 손에 이르렀네/ 세상 번뇌 뜨겁게 들끓으면/ 맑고 시원한 바람 일으켜 주리."

혜심도 지눌과 같이 정혜쌍수를 인정했지만, "망상을 여의는 데는 간화선만한 것이 없다."며 간화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눌이 만든 삼문(三門)이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수행의 단계를 설정한 것이라면, 혜심은 삼문을 하나로 아울러 간화일문(看話一門) 혹은 일미선(一味禪)을 주창하고 실천했다. 어떤 근기이든 화두 참구 앞에서 평등해졌다.

〈연세대 객원교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약사사
•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91
• 주 지 : 혜안
• 승 번 : 11–7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대승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관음사
•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91
• 주 지 : 도광
• 승 번 : 18–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대승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법하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 현대불교신문 검색
NAVER 현대불교신문